

22. 십자가—다시 읽기 (정치적, 신학적 이해)

A. 종교재판. 막 14:53-65 다시 보기

1.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 8:31; 11:27; 14:43, 53)
 - 예수는 마가복음 2-3 장을 통해 이미 정죄된 상태. 3: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 판결(사형)은 정해진 상태(3:6; 14:1)에서 단지 적절한 죄목이 필요함. 고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는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은 예수를 고소하기 위한 예심(豫審, preliminary hearing) 역할.
 - 11:27 성전에서 정면대립, “무슨 권세로”? => 결말은 성전체제몰락 (마가복음 13 장) => 예수제거(14:1)
2. 거짓증거—굳이 변명을 안해도, 저절로 드러남 (최소한 이 정도 믿음/신념은 있어야)
 - 요 2:19-22. 성전파괴와 예수의 예루살렘에서 운명을 신학적으로 연결시킴=> 곧 예수는 자신의 몸(성전)을 3 일만에 일으킨다고 해석.
3. 대제사장.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14:61) 그렇다. 그 의미는? (삼하 2:14; 시 2:7)
 - 찬송 받을 자=> God [하느님 이름 부르기를 꺼리는 유대교 풍습 반영=> 이름 부르는 자체로 신성모독. m. Sanh. 7:5]; YHWH; G-D
 - 그렇다!/그렇다고? (I am; ἐγώ εἰμι)
 1. 인정. Yes, I am! 보통 예수가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로 인식.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어떤 의미에서? => 막 12:35-37 (어떤 그리스도?)
 2. 수사의문. Am I? 마 26:64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σὺ εἶπας). 눅 22:67-68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가와 마태의 대답을 엄두에 둔 이해.
 3. 마가복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 초기 복음서기자들은 그 대답을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
 - 권능자 우편 (시 110:1) => 역시 하느님 이름 부르기를 회피. cf. 12:36; 하늘 구름과 함께 오다 => 단 7:13 (막 13:26) Q. 어디로 오나/가나? (Answer: to God; not to us) => vindication; 누가 보나? 다니엘의 이상=> not mentioned (단 7:13); 그들이 (막 13:26); 너희들이 (막 14:62); 그를 찌른 자들도 (계 1:7). 공통점=> 예수를 핍박한 자들. 초점은 예수가 혐의를 벗음으로써, 그 대적자/원수들에게 죄를 물음(시 110:1).

B. 형사재판

1.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15:2 => vv. 9, 12, 18, 26, 32)
 -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은 형사법상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바뀌어야 함. 이 질문을 그것을 엄두에 둬=> 정치적 의미, 곧 내란죄를 찾고자 함.
 - 종교재판에서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의 대답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다윗) 왕된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점. 다스리기 보다는 섬기는 그리스도(9:41) => 다른 그리스도 이해. 그렇지만,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의미로 고소.
2. 답. "네 말이 옳도다"(개역).
 - 본문(σὺ λέγεις)은 네가 하는 말이지, 내 말은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강조할 목적으로 2 인칭 대명사를 첨가한 사실에 주목하라.) 정치적 음모
 - 십자가 처형 (15:27) => 정치적 반역자 (강도, ληστής => 요세푸스에 따르면, 반로마지배체제 투쟁자)

- 바라바=> “민란을 꾸미고...” (기득권자의 표현 vs. 민주항쟁). 예수가 이들과 같은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격이 정치적 반역임을 암시. (누구의 눈에??) => 야고보, 요한 (10:35-40)
- 구레네 사람 시몬 (문학적 재치) => “시몬(베드로)아, 넌 뭐하니?” [14:29, 31 고백과는 달리 베드로는 숨어서 지켜보고, 3 번 예수를 부인]

C. 신학적 입장

1. 십자가 처형과 반응(이해)

-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아람어) <<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히브리어)
- 엘리야를 부른다=> 아람어/히브리어를 모른다 (냉소. 어디 엘리야가 구하나 보자)
- 예수.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았다. 마지막 말. 왜 도와주지 않는가? (<< 시 22:2)

2. 신학하기. 신학 다시하기

- 성소 휘장이 찢어져(ἑσχίσθη) 들이 되다 (15:38); 백부장: “하나님의 아들” (15:39=> 1:1)
- 막 1:10=> 하늘이 갈라지고(σχιζομένους)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하늘과 성소는 모두 하나님의 처소, 경외의 대상. 성서전통에서 신의 현현(顯現, epiphany) => 하나님이 정의/공의를 나타냄¹ 예수는 성전의 몰락을 예고. 고로 성소휘장이 찢어짐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대제사장 권위/나와바리?) 로부터 몰락의 시작. 예수의 십자가처형은 성전의 몰락의 신호탄!
- 히브리서 6:19-20; 10:19-20 => 이걸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나????
- Q. 그렇게 운명하시다 (οὕτως ἐξέπνευσεν) 여기서 그렇게는? (37 절) 그는 휘장찢어짐을 못보았을 것. (어떻든, 이는 신학적 서술체/narrative, 신학다시하기). 어둠? 엘리엘리..., 큰 소리? 갑작스런(분에 못이긴) 죽음?=> 억울한 죽음 (결코, 도인의 초연한 자세는 아님. 요한복음과 비교).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 innocent (막 14:62 과 같은 맥락)

2. 증인: 많은 여인들 (15:40-41)

-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15:21. 이렇게까지 자세히?); 로마 백부장 (15:39); 많은 여인들 (15:40-41); 아리마대 사람 요셉 (15:43) =>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마리아와 또 살로메
-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눈에 실패로 끝난 예수의 삶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이해
-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 그리고 시작 =>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先生の 뜻은?)

¹ 요세푸스는 성소가 하늘을 상징한다고 보며(*Jewish Antiquities* 3.123, 181), Mary Ann Tolbert 는 성소 휘장이 갈라짐은 예수가 인간세상에서 하늘로 옮겨간 것으로 묘사. 아울러 선택된 자들이 신의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림 (*Sowing the Gospel: Mark's Work in Literary-Historical Perspective*, 280-81).

REFLECTIONS:

1.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은 당시 지배체제(공회)를 형성했다(막 15:1). 예수는 이에 홀로 맞서 싸웠다. 다음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라.

조선건국이래로 600년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꾸어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였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해 패가망신했다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말이야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했어요

눈감고 귀를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있다

(고 노무현대통령 연설문 일부)

2. 15:5.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없다.
예수는 종교재판과 형사[민사]재판에서 우두머리의 질문에만 대답할 뿐, 모든 송사에 대해 아무 말/변명도 하지 않았다. Any comment?
3. 오늘날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